

<캐릭터: 민수(21,남)/ 예빈(20,여)/ 준영(25,남)>

-----  
--

### S#1. 길거리, EXT/ 심야

오토바이 한대가 밤길을 가르고  
건물 앞에 멈춰선다.

**민수(21,남)**, 헬멧을 벗지 않은 채  
배달 가방에서 포장된 음식을 꺼내며  
**예빈(20,여)**과 전화를 하고 있다.

**INS>** 예빈의 목소리

**예빈** 오빠, 벌써 1시인데 아직도 배달하고 있어?

**민수** (음식을 챙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) 오늘은 이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.

**예빈** 응- 오늘도 수고 많았어, 오빠! 난 졸려서 자려고 누웠어.

민수, 예빈과 전화하며 작게 웃는다.  
손에는 포장된 음식을 들고 계단을 올라간다.

**민수** (장난스레) 여친 아버님 병원비로 나간 돈 값느라  
배달일 하는 남친이 어디있어, 응?

**예빈** (미안하다는 듯이) 아 오빠아....

**민수** (작게 웃으며) 농담이고, 아버님은 어떠셔? 수술하시고 한번도 뵈지를 못했네...  
조만간 병문안이라도 가야겠다.

예빈, 당황해서 살짝 말을 더듬는다.

**예빈** (애써 태연한 척 하며) 어..? 아, 아니야. 안 그래도 돼!  
아빠가 아플 때 옆에 사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..!

민수, 어느덧 배달을 시킨 집 현관에 도달한다.

**예빈** 그... 오빠! 나 졸려서 먼저 잘게, 잘자!

똑, 전화가 끊기고 순식간에 고요해진다.

민수, 내심 아쉬워하면서  
피곤하다는 듯이 뒷목을 주무르며 작게 한숨 쉰다.  
그 후 현관문을 두드린다.

민수 배달이요-

## S#2. 파티룸, INT/ 심야

현관문이 열리더니  
안에서 예빈이 나온다.  
민수, 예빈을 보고 당황하여 멈칫한다.

**예빈** (의아해하며) 빨리 주세요.

민수, 오토바이 헬멧을 벗는다.

**민수** 예빈아? 너가 왜 여기..

예빈, 민수를 보고 다급하게 문을 닫는다.  
민수, 제빨리 닫히는 문틈 사이에 발을 넣고  
강하게 문을 연다.

**민수** (표정이 굳으며) 너 뭐하는 거냐고, 여기서.

**예빈** (작게 웅얼거리며) 아니 그게..

예빈, 어쩔 줄 몰라하며 눈치만 본다.

**민수** 좀 전에 나한테 잔다고 했잖아. 예빈아, 너... 아니지?

민수,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 
이내 집 안으로 들어간다.  
그런 민수를 다급히 잡는 예빈.

**예빈** (다급하게) 오빠..! 오빠 내가 다 설명할게!

**민수** 놔.

민수, 예빈의 손을 뿌리치고  
손에 들고 있던 배달 음식도  
바닥에 툭 떨어뜨린다.

뭔가에 흘린 듯이 집 안을 두리번 거리는 민수.  
거실에는 이미 빈 술병들과 맥주 캔이 굴러다니고 있다.

**민수** (중얼거리며) 하... 많이도 마셨네..

그때 **준영(25,남)**이 화장실에서 나온다.

### S#3. 파티룸, INT/ 심야

민수를 보며 의아해하는 준영.  
민수, 준영에게 시선이 고정된다.

**준영** (예빈을 보며 민수를 향해 턱짓한다) 뭐야, 누구야? 오늘 셋이 하자고?

**민수** (준영을 노려보며) 뭐 이 새끼야?

민수, 그대로 준영에게 냅다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다.

**민수** (소리치며) 이게 뚫린 입이라고 개소리를 짓궂어!

준영, 민수의 팔을 잡고 그대로 강하게 밀친다.

**준영** (옷깃을 정리하며 어이없다는 듯이) 뭘, 씨... 파트너 처음 봐?

그 말에 민수, 다시금 준영에게 달려들려고 한다.  
그 모습에 예빈, 민수를 급하게 말린다.

**예빈** (민수의 팔을 붙잡으며) 아 오빠, 그만해...! 하지마!  
민수, 예빈을 밀친다.

**민수** 넌 지금 그딴 말이 나와?

민수, 준영에게 다시 달려들며 주먹을 날린다.  
그대로 얼굴을 한대 맞는 준영.

이내 준영, 민수의 멱살을 가격한다.  
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민수.  
그런 민수를 연신 발로 걷어차는 준영.

**준영** (민수를 걷어차며) 별, 같잖은, 게!

예빈, 겁에 질린 채 이 광경을 구석에서 보며  
두려움에 벌벌 떨고있다.

### S#4. 파티룸, INT/ 심야

준영, 찌그리고 앉아 쓰러진 민수의 머리채를 잡아든다.

**준영** 하 씨... 찌따새끼가. 어디서 씨발, 주제 넘게 주먹질이야? 어?

민수, 신음하며 준영을 노려본다.

**준영** (헛웃으며) 하, 이 새끼 눈깔봐라? 덜 맞았지 아주?

준영, 민수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 
반대손으로 민수의 뺨을 연신 때린다.  
금세 민수의 뺨이 붓고 입가가 찢어져 피가 난다.

준영, 그 모습을 보다가  
먹다 남은 소주를 통째로 민수의 얼굴에 붓는다.

**준영** (비릿하게 미소지으며) 이야, 면상이 말이 아니네? 아프지? 형이 친히 소독해줄게~

민수, 쓰라림에 고통스러워하며  
인상을 잔뜩 찌푸린채 작게 신음한다.

**준영** (비웃으며) 아, 내가 재밌는거 알려줄까? 그 뭐더라, 너 재네 아빠 병원 수술비 내줬다며?  
그거 재가 구라 깐거야 새끼야. 네가 지금 딸배짓해서 돈 버는거?  
그냥 개호구 짓이라고.

민수, 준영의 말에 흥미한 정신이면서도  
잘 떠지지도 않는 눈으로  
준영을 보려고 한다.

**민수** 뭐..? 그게 무슨...

민수, 예빈을 보며 애써 부정한다.

**민수** 아니지..? 너 분명... 아버님 쓰러지셨다고... 급하게 수술해야해서... 그래서...

예빈, 민수의 시선을 피하며  
고개를 돌려버린다.  
그 모습에 준영, 웃음을 터트리며

**준영** (크게 웃으며) 어휴 등신, 존나게 순수하네.  
야, 그 돈으로 나랑 물고 빨았어~

민수, 아무 말도 하지 못 하고  
넋이 나가 있다.

**준영** 너도 애가 클럽에 술에, 노는거 좋아하는 거 알지?  
근데 나한테 자기 남친은 숨 막힌다나, 재미없다나~

준영, 예빈을 보며 말을 건다.

**준영** (픽 웃으며)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?

예빈, 부어오른 뺨과 술과 침이 뒤섞인 채  
바닥에 쓰러져있는 민수를 힐끔본다.

**예빈** (짜증내며) 아 몰라, 그냥 구질구질해..!  
선비도 아니고, 클럽은 왜 못 가게 하는데?  
다 마음에 안 들어, 그냥 사람이 질려.

준영, 빈 소주병을 민수에게 던진다.  
소주병이 민수의 팔에 맞고  
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진다.

**준영** 아, 오늘 술도 잘 마셨다~?

예빈, 준영의 팔짱을 끼며

**예빈** 오빠, 빨리 나가자. 막 해코지 하면 어떡해...

**준영** (픽 웃으며) 하여간 겁도 많아. 재가 뭘 할 수 있는데?

준영, 예빈의 입술을 보다가  
엄지로 쓸어내린다.

**준영** 근데 화장 다시 해야겠는데? 립 다 번졌다.  
뭐, 이것도 나름 섹시해서 좋긴 하지만~

**예빈** 아 조음..!

예빈, 가볍게 준영의 어깨를 때리고  
이내 화장실로 들어간다.

## **S#5. 파티룸, INT/ 심야**

준영, 민수는 신경도 안 쓰고  
뒤돌아 서서 휴대폰은 본다.

**준영** (중얼거리며) 모텔 다시 잡아야겠네...

민수,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 
있는 힘껏 소주병을 휘둘러  
준영의 머리를 내려친다.

**민수** 씨발!

순식간에 옆으로 쓰러지는 준영.  
예빈, 소주병이 깨지는 소리에 화장실 문을 연다.

**예빈** (비명을 지르며) 오빠..!

예빈,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.  
민수, 쓰러진 준영의 위에 올라타서  
연신 주먹질한다.

**민수** (울부짖으며) 씨발, 내가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!

이내 바닥에 피가 흘러내리고  
흰 자국들이 보인다.

잠시 후 민수, 준영에게서 떨어진다.

민수,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리자  
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는  
예빈이 보인다.

민수, 비척거리며  
예빈의 앞으로 가서 선다.

때리려는 듯이 손을 치켜올리자  
눈을 질끈 감고 움츠러드는 예빈.

민수, 그 모습을 잠시 보다가  
이내 손을 내리고  
뒤돌아서서 하이바를 챙긴다.

**민수** (낮은 목소리로) 다시는 연락하지마.

울음을 참는 것처럼,  
민수의 목소리가 열게 떨렸다.  
민수, 그대로 돌아보지 않고  
현관문을 열고 나간다.

FADE OUT.